

음성지도법을 이용한 일본어 청·탁음(清·濁音)의 지도 효과

강 연 화*

(e-mail: hwa1809@dju.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1 듣기 조사1 |
| 2. 선행연구 | 42 듣기 조사2 |
| 3. 실험 | 43 듣기 조사1과 2의 비교 |
| 3.1. 조사협력자 | 5. 고찰 |
| 3.2. 음성자료작성 | 5.1. 듣기조사1 |
| 3.3. 실험방법 | 5.2. 듣기조사2 |
| 3.4. 지도 내용 | 5.3. 지도법의 효과 |
| 4. 결과 | 6. 결론 |

키워드 : 清音(clear sound), 濁音(voiced sound), 知覚(perception), ヴェルボトナル・メソッド(Verbo-Tonal Method)、ミニマル・ペア(minimal pair)

1. 서론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하고 다른 외국어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성습득 면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음성지도를 경험한 학습자가 많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 음성 항목 중에서도 일본어의 청·탁음(清·濁音) 변별(弁別)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지각(知覚)과 생성(生成)에 오용이 많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오용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은 도다(戸田1998), 가시마(鹿島2002), 민광준(2015) 등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 대전대학교 국제언어학과 일본언어문화전공 조교수, 언어교육학.

그러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음성 습득에 관한 연구는 한·일 대조 연구, 한국인 학습자가 습득 곤란한 발음 항목에 관한 오용 분석 및 경향 연구, 음성 지도법의 이론과 지도 방법의 소개에 한정된 연구가 많다.

반면, 음성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지각과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실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성 지도법을 제안한 연구는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본어 청·탁음과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지도를 통한 지도법의 효과에 주목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Verbo-Tonal Method (이하 VT법으로 표기)¹⁾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이하 창작 동요로 표기)²⁾을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고 지도법의 장·단점과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발음 일주일에 끝내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응용한 청·탁음 음성지도법(이하 미니멀 페어로 표기)³⁾에 의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효과를 밝힌다.

넷째, 본 조사에서 활용한 두 종류의 지도법(VT법, 미니멀 페어 지도법)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음성 지도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

1) VT법(verbo-Tonal Method)은 언어 청각론의 응용분야로 청각·언어 장애자 및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지도·교정, 보청기 장착에 응용된다. 小坪博子外(2002)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グベリナ記念ヴェルボトナル普及協会, p.17 (필자 번역)

2)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Nursery Rhyme Stimulation)은 외국어 교육과 청각장애자의 발음 교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언조청각론(言調聴覚論)의 독자적인 수단으로 음악적 자극이라고 불려진다. 와라베 노래 리듬은 특정의 언어로 구성되어지는 짧은 문장의 집합체로 언어의 리듬 인토네이션 악센트, 모음, 자음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습득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의 총칭으로 복잡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에 원리를 두고 있다.

3) 김조웅·尾崎達治(1999)는 한국어 음운체계를 응용한 지도의 예로 か행음은 우리말에서도 단어 초성의 [ㄱ]을 [k]로 발음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가·기·구·게·고]로 발음하고, が행음이 단어 첫머리에 나오면 단어 초성의 [ㄱ]을 [g]로 발음하는 습관이 없으므로 먼저[으]를 발음할 때와 똑같은 입모양을 만들고 [가·기·구·게·고] 앞에 [으]를 짧게 넣는 기분으로 [(으)가·(으)기·(으)구·(으)게·(으)고]로 발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4) 본 연구는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의 비교 분석을 위한 것으로 VT법을 이용한 장

2. 선행연구

일본어의 청·탁음은 의미 변별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청·탁음의 변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청·탁음에 관한 연구로 우메다(梅田1985)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의 청음을 한국어의 농음(濃音)⁵⁾으로 탁음을 평음(平音)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마쓰자키·가와노(松崎·河野1998)는 무성·유성(無聲·有聲)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청취 레벨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변별 능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발음한 음(音)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에 관해 나카토(中東1998)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일본어의 무성음(無聲音)과 유성음(有聲音)의 식별은 어중(語中)보다 어두(語頭)에 많다고 지적했다.

도다(戸田2004)도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 「かんこく」를 「かんごく」로 발음하고 「わたし」를 「わだし」 또는 「わったし」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어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이 있지만, 한국어는 평음(平音), 격음(激音), 농음(濃音)의 구별이 있고 일본어와 다르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후쿠오카(福岡2007)는 어두에 유성과열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 파열음 지각에 있어서 어중(語中) 보다 어두(語頭)에서 유성(有聲)과 무성의(無聲)혼동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이 일본어의 청·탁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청·탁음 변별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오용 경향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고 음성지도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에 곤란을 느끼는 음성 항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연화(2016) 「일본어 청·탁음(清·濁音)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과 지도법에 대하여」 『일본문화학보』 제70집,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강연화(2017) 「일본어 청·탁음(清·濁音)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과 발음지도」 『일본근대학연구』 제57집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5) 한국어의 경음(硬音)에 해당함

강연화(2012, 2014)는 VT법과 한국어 음운체계를 응용한 발음지도법을 활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해 특수 음소인 축음(促音)과 장음(長音)의 오용이 감소했음을 밝혔다. 또한, 학습자의 발음이 개선되어 축음의 지속시간이 일본인의 지속시간에 근접해지고 장음의 지각 오용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에서 두 지도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강연화(2016, 2017)가 일본어 청·탁음을 중심으로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청·탁음 지각 변별에 대한 오용 경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두 지도법의 장·단점 및 효과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지도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실험

본 조사는 한국인 초·중급 학습자 45명⁶⁾을 대상으로 2종류의 듣기 테스트 듣기 조사1(2015년 9월)과 듣기조사2(2015년 11월)를 실시했다.

3.1 조사협력자

대전 소재의 대학에서 일본어를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는 초·중급 일본어 학습자 45명(실험군:30명, 대조군: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험군은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15명(이하 A군), 미니멀 페어를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 15명(이하 B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15명(이하 C군)으로 분류⁷⁾했다.

3.2 음성 자료(듣기 조사1, 2) 작성

어두(語頭)와 어중(語中)에 탁음을 포함하거나 청음만으로 이루어진 유의미

6) 학습자의 레벨은 일본어능력시험 기준에 따라 초급(일본어능력시험4⁵)과 중급(일본어능력시험2³급 레벨의 학습자)으로 나누었다.

7) 조사는 초·중급 학습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같은 레벨의 학습자라도 개인차가 있음을 감안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한 후, 각 그룹별(A군:미니멀 페어 지도법, B군:대조군)로 15명(청·탁음 지각 오용 수가 30점대 5명, 20점대 5명, 10점대 5명)을 선정해 균등하게 배정했다.

어(有意味語) 80개를⁸⁾ 선정하여 랜덤으로 배열하고, 듣기 조사 원고를 작성한 후, 일본어 모어화자(동경 출신)에게 의뢰해 음성 자료를 녹음했다.

단어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수업 과정에서 학습한 단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초·중급 레벨에서 다루지 않는 단어들을 선정했고,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1과 단어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였다. 듣기조사에 사용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듣기조사에 사용한 단어 예】

1	こうか	2	かいとう	3	たいきん	4	とく	5	したい
6	ごうか	7	かいどう	8	だいきん	9	どく	10	しだい

3.3 실험 실시 방법

3.3.1 듣기 조사1

듣기 조사1은 3.4절에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초·중급 학습자 45명(실험군:30명, 대조군: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군, 미니멀 페어를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B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을 대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본어 음성 자료를 들리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듣기 조사 1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별로 약 10분 정도이다.

3.3.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세 그룹 동일하게 듣기조사1의 10주 후에 실시했다. A군은 VT법의 창작 동요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 B군은 미니멀 페어(최소대립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 C군은⁹⁾ 지도와 연습 없이 실시했다.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 1과 동일하고 단어의 순서만 다른 음성 자료를 들려주고 들리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듣기 조사2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별로 약 10분 정도이다.

8) 듣기조사에 사용한 단어의 어두(語頭)와 어중(語中)의 비율은 각 50%, 청음과 탁음의 비율은 각 50%로 균등하게 배정했다.

9) C군은 수업 진행 중에 교재 내용에서 청·탁음이 나타나는 단어가 제시되면 구분해서 정확하게 읽도록 주의를 주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가 시범을 보인 후 학습자가 따라 읽게 했다.

3.4 지도 내용

3.4.1 A군(VT법)

지도와 연습은 『VTS 입문』(2002)을 참고로 작성한 창작동요를¹⁰⁾ 이용해 실시했다.

창작 동요를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고 박자와 리듬에 주의하면서 필자가 한 번 읽은 후 학습자가 따라서 반복하는 지도와 연습을 실시했다.

【창작 동요를 이용한 연습 내용】

- ① だいがく(大学) : たいがく(退学) 등의 단어를 제시하여 청·탁음의 유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 ② タタタ : タダダ, タンタンタン : ダンダンダン
カカカ : ガガガ, カンカンカン : ガンガンガン
2박, 3박, 4박으로 구성된 무의미어(無意味語) 패턴을 보여주고 필자와 학습자가 같이 읽으면서 발음의 차이를 느끼도록 한다.
- ③ 아래에 제시한 【청·탁음의 창작 동요】를 학습자에게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박자와 리듬에 주의하면서 필자가 시범으로 읽는다. (2회)
- ④ 필자가 읽은 후 학습자가 복창하면서 연습한다. (3회)
- ⑤ 학습자가 각자 연습한다. (2분)
- ⑥ 마지막으로 필자와 학습자가 다 같이 연습한다. (1회~2회)

【청·탁음의 창작 동요】¹¹⁾

○ きりぎり	まわるよ	きりぎり	○ こくこく	つごうか	こくこくと
ぎりぎり	ついたよ	ぎりぎり	ごくごく	のん	ごくごく
○ かんかん	おこって	かんかんと	○ とんとん	とんとん	とんとんと
がんがん	やげざけ	がんがんがん	だれかが	たたくよ	とんとんと

3.4.2 B군(미니멀 페어)

지도와 연습은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발음 일주일에 끝내기』에서 제

10) 창작 동요는 『VTS 입문』(2002)을 참고하여 ① 지도해야 하는 음성의 청취, 생성에 적합한 리듬을 선택 ② 기본적으로 4박의 어구(語句)를 선택 ③ 간격을 두어 리듬 그룹을 확인 ④ 각 행의 최종 문절에 목표단어 배치 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11) 청·탁음의 창작 동요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제시된 단어나 표현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작성하여 활용했다.

시한 청·탁음의 미니멀 페어를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고 테이프를¹²⁾ 듣고 따라 읽은 후 필자의 발음을 따라서 반복하고 연습하는 형태로 실시했다.

각 그룹별(A군, B군) 지도와 연습에 소요된 시간은 약70분(주1회×약7분×10회)이다.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연습과 지도 내용】

- ① だいがく(大学) : たいがく(退学) 등의 단어를 제시하여 청·탁음의 유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 ②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발음 일주일에 끝내기』에서 제안한 청·탁음 미니멀 페어(12쌍)¹³⁾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 ③ 슬라이드의 미니멀 페어 음성 자료(테이프)를 들려준다. (1회)
- ④ 필자가 읽은 후 학습자가 따라 읽으며 연습한다. (3회)
- ⑤ 학습자가 각자 연습한다. (2분)
- ⑥ 필자와 학습자가 다 같이 연습한다. (1회~2회)

【발음 연습에 사용한 미니멀 페어 단어 예】

○ <small>かいしゃ</small> 会社 - <small>がいしゃ</small> 外車	○ <small>しょうがい</small> 紹介 - <small>しょうがい</small> 障害	○ <small>とく</small> 投資 - <small>とく</small> 動詞
회사 - 외제차	소개 - 장애	투자 - 동사
○ <small>じゅぎょう</small> 授業 - <small>じゅぎょう</small> 儒教	○ <small>せいど</small> 制度 - <small>せいど</small> 生徒	○ <small>てまえ</small> 手前 - <small>てまえ</small> 出前
수업 - 유교	제도 - 생도	앞 - 배달

4. 결과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청·탁음 지각에 나타나는 오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¹⁴⁾

12)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발음 일주일에 끝내기』, (주)시사일본어사 교재에 포함된 듣기훈련 테이프로 미니멀 페어 24쌍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은 후, 각 페어를 두 번씩 읽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13) か행음과 が행음의 미니멀 페어 12쌍, た행음과 だ행음의 미니멀 페어 12쌍을 격주로 들려주고 지도했다.

14) 본 조사에서는 청·탁음의 위치 즉, 청음과 탁음이 단어의 어두(語頭)에 있는지 어중(語中)에 있는지를 정확히 듣고 썼을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오용은 오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4.1 듣기 조사1

4.1.1 청·탁음 오용 경향

<表1>전체오용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합계(비율)
	청음→탁음(탁음화)	탁음→청음(청음화)	
VT법 (A군)	152	221	373 (31%)
미니멀페어 (B군)	160	208	368 (31%)
대조군 (C군)	137	217	354 (29%)
합 계	449	646	1,095(30%)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표1>은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1의 전체 오용 결과이다.

A군은 총 1,200개의 단어 중 373개(31%), B군은 368개(31%), C군은 354개(29%)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다.

청음을 탁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152개, B군 160개, C군 137개로 나타났다,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221개, B군 208개, C군 217개로 세 그룹 모두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청·탁음 위치별 결과

<表2>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도법	오 답				합계
	어두청음	어두탁음	어중청음	어중탁음	
VT법 (A군)	68	111	84	110	373
미니멀페어 (B군)	81	104	79	104	368
대조군 (C군)	67	107	70	110	354
합 계	216	322	233	324	1,095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예를 들어, <어두> 청음을 <어두> 탁음으로 오용하는 경우(어두 청음 오용)는 오답으로 처리하고 <어중> 청음을 <어중> 탁음으로 오용하는 경우(어중 청음 오용)는 정답으로 처리했다. 철저한 사전 지시로 공란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중> 청음을 <어중> 탁음으로 오용하는 경우는 오답 처리와 동시에 어두 청음 오용으로 간주했다.

<표2>는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조사 1의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이다.

A군은,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68 < 어두탁음111),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84 < 어중탁음110).

B군은,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81 < 어두탁음104),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9 < 어중탁음104).

C군도 A, B군과 마찬가지로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67 < 어두탁음107),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0 < 어중탁음110).

위와 같이 세 그룹 모두 어두의 청음(216개)보다는 어두의 탁음(322개)에, 어중의 청음(233개)보다 어중의 탁음(324개)에 오용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가장 많았고 어두 탁음의 오용 수와 근소하게 나타났다.

4.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실험군을 대상으로 VT법(A군)과 미니멀 페어(B군)를 이용한 반복적인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지도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C군)과의 비교를 통해 지도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했다.

4.2.1 청·탁음 오용 결과

<表3>전체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합계(비율)
	청음→탁음(탁음화)	탁음→청음(청음화)	
VT법 (A군)	44	50	94 (7%)
미니멀페어 (B군)	98	99	197 (16%)
대조군 (C군)	132	145	277 (23%)
합 계	274	294	568 (15%)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표3>은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2의 전체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은 총 1,200개의 단어 중 94개(7%), B군은 197개(16%), C군은 277개(23%)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다.

청음을 탁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44개, B군 98개, C군 132개로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50개, B군 99개, C군 145개로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2 청·탁음 위치별 결과

<表4>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도법	오 답				합계
	어두청음	어두탁음	어중청음	어중탁음	
VT법 (A군)	24	21	20	29	94
미니멀페어 (B군)	49	35	49	64	197
대조군 (C군)	57	61	75	84	277
합 계	130	117	144	177	568

<표4>는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2의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의 경우,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이 많았으나(어두청음24 > 어두탁음21) 그 차이는 근소하다. 또한,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았다(어중청음20 < 어중탁음29).

B군의 경우,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이 많으며(어두청음49 > 어두탁음35)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49 < 어중탁음64).

C군의 경우,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57 < 어두탁음61),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았다(어중청음75 < 어중탁음84).

위와 같이 어두의 탁음(117개)보다 어두의 청음(130개)에, 어중의 청음(144개)보다 어중의 탁음(177개) 지각에 오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듣기조사1과 듣기조사2의 비교 (지도 전과 지도 후)의 비교

4.3.1 전체 오용 및 지도법의 효과

음성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의성 검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表5> 지도법 실행 전·후 오용 평균 비교 검정 결과

지도법	듣기 조사		t값(p)
	1차 (N, Mean)	2차 (N, Mean)	
VT법 (A군)	373 (24.87)	94 (6.27)	8.79***
미니멀페어 (B군)	368 (24.53)	197 (13.13)	5.02***
대조군 (C군)	354 (23.60)	277 (18.47)	2.21*

*p<.05 **p<.01 ***p<.001

<표5>는 지도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 B군과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의 지도 전후의 결과를 비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A군은 듣기 조사1의 373(개인 평균 오용 수:24.87개)→듣기조사2의 94(개인 평균 오용 수:6.27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값이 8.79,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 듣기 조사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B군은 듣기 조사1의 368(24.53개)→듣기조사2의 197(13.13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값이 5.02,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B군 듣기조사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조군인 C군은 듣기 조사 1의 354(23.60개)→ 듣기 조사 2의 277(18.47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값이 2.21,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C군 듣기조사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도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조군은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 보다 오용 감소의 폭이 크지 않고, 평균 5~6개 정도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음성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오용이 감소되었고,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 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4.3.2 청·탁음 오용 비교

세 그룹(A군, B군, C군)의 지도 전후의 청·탁음 오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유의성 검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表6> 지도법 실행 전후 청·탁음 오용 평균 비교 결과

지도법	청음			탁음		
	듣기조사1 (N, Mean)	듣기조사2 (N, Mean)	t값(p)	듣기조사1 (N, Mean)	듣기조사2 (N, Mean)	t값(p)
VT법 (A군)	152 (10.13)	44 (2.93)	8.09**	221 (14.73)	50 (3.33)	7.00***
미니멀 페어 (B군)	160 (10.67)	98 (6.53)	2.58*	208 (21.87)	99 (6.60)	7.51***
대조군 (C군)	137 (9.13)	132 (8.80)	.23	217 (14.47)	145 (9.67)	3.04**

*p<.05 **p<.01 ***p<.001

<表6>은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군,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B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의 지도 전·후의 청·탁음 오용 수를 비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A군의 경우 듣기조사1의 청음 오용 수는 152개(개인당 평균 오용 수:10.1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의 듣기조사2에서는 총 오용의 수가 44개(2.93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8.09,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의 듣기 조사 1과 2의 청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청음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군의 듣기조사1의 탁음 오용 수는 221개(14.7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듣기 조사2에서는 총 오용의 수가 50개(3.33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7.00,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의 듣기 조사 1과2의 탁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군의 듣기조사1의 청음 오용 수는 160개(10.67개)로 나타났다. 듣기조사2에서는 총 오용의 수가 98개(6.53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2.58,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B군의 듣기조사1과 2의 청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군의 듣기조사1의 탁음 오용 수는 208개(21.8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에는 총 오용의 수가 99개(6.60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7.51,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B군의 듣기조사1과 2의 탁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의 듣기조사1의 총 오용 수는 137개(9.13개)로 나타났고, 듣기조사2는 총 오용 수가 132개(8.80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0.23,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C군의 듣기조사 1과 2의 청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의 듣기조사1의 탁음 오용 수는 217개(14.47개)로 나타났으며, 듣기조사2는 총 오용 수가 145개(9.67개)로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t 값이 3.04,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C군의 듣기조사 1과 2의 탁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위와 같이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청·탁음 오용이 감소되었고, t 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 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表7〉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VT법+미니멀페어+대조군)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p)
듣기조사1 청·탁음	청음	45	9.98	4.41	-5.78***
	탁음	45	17.02	6.88	
듣기조사2 청·탁음	청음	45	6.09	3.46	-.58
	탁음	45	6.53	3.84	

*p<.05 **p<.01 ***p<.001

〈表7〉은 듣기조사1과 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이다.

듣기조사1의 청음 평균은 9.98(4.41)이며, 탁음은 17.02(6.88)으로 탁음의 오용이 청음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5.78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듣기조사1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듣기조사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 청음의 평균은 6.09(3.46)이며, 탁음은 6.53(3.84)으로 탁음의 오용이 청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58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듣기조사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3.3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表8〉청·탁음 위치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검정 결과(VT법+미니멀 페어+대조군)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듣기조사1의 청·탁음 위치	어두 청음(a)	90	2.40	1.59	12.04***	ac<bd
	어두 탁음(b)	90	3.58	2.03		
	어중 청음(c)	90	2.59	1.62		
	어중 탁음(d)	90	3.60	1.69		
	어두 청음(a)	90	1.44	1.32	3.59*	

듣기조사2의 청·탁음 위치	어두 탁음(b)	90	1.30	1.35		b<d
	어중 청음(c)	90	1.60	1.37		
	어중 탁음(d)	90	1.97	1.67		
*p<.05 **p<.01 ***p<.001						

<表8>은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 정도 차이 검정 결과이다.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듣기조사1(A군, B군, C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듣기조사2 (A군, B군, C군)의 오용수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먼저 듣기조사1의 청·탁음의 위치별 오용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중 탁음의 평균이 3.60으로 가장 높았고, 어두 청음이 2.40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값이 12.04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청·탁음 위치에 따른 오용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a와c, b와d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두, 어중 둘 다 청음 보다 탁음에서 오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조사2의 (VT법, 미니멀 페어, 대조군)의 청·탁음의 위치별 오용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중 탁음의 평균이 1.97으로 가장 높았고, 어두 탁음이 1.30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값이 3.59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청·탁음 위치에 따라 오용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b, d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중 탁음이 어두 탁음 보다 오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찰

5.1 듣기 조사1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A군, B군, C군 학습자는 총 2400개의 단어 중 1,095개(30%)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449<646)현저하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음과 탁음의 구별이 없는 한국어의 영향 즉, 모어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청·탁음의 변별은 용이(容易)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김조웅·오자키(金·尾崎1999)는 한국어의 경우 [k]발음과 [g]발음이 별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k]발음을 초성으로 하는 か행음과 [g]발음을 초성으로 하는 가행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에 있어서는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216 < 어두탁음322),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어중청음233 < 324 어중탁음).

김조웅·오자키(金·尾崎1999)가 한국어는 단어 초성에 놓인 [ㄱ]을 [k]로 발음하는 반면 유성음 사이에 놓인 [ㄱ]을 [g]로 발음하는 습관이 무의식중에 우리 몸에 배어 있어, 단어 첫머리의 [가·기·구·계·고]는 [か·き·く·け·こ]로 발음되고 어중(語中)이나 어말(語末)의 [가·기·구·계·고]는 [が·ぎ·ぐ·げ·ご]로 발음하게 된다고 논한 바 있다.

또한, 진종복·민광준(2014)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어두의 유성과열음을 무성과열음으로, 어중의 무성과열음을 유성과열음으로 발음하는 오용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본 조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음운체계가 가지는 특성이 학습자의 일본어 청·탁음 지각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A군과 B군을 대상으로 음성 지도법을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고 지도 전후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또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도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실시했다.

A군, B군, C군 학습자는 총 단어의 약 15%에 해당하는 568개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다소 많았다.

VT법으로 지도를 실시한 A군의 경우 279개(듣기 조사1의 373개→듣기 조사2의 94개), 미니멀 페어 지도법으로 지도를 실시한 B군의 경우 171개(368개→197개), 대조군인 C군의 경우 77개(354개→277개)로 오용 수가 감소했다.

위와 같이 일본어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듣기 조사1에 비해서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오용이 감소한 사실에

서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의 경우도 오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 효과라고 판단된다.

즉, 일본어 수업에서 다루는 단어 중 청·탁음이 포함된 어휘는 여러 차례 나오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청·탁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함으로써 변별 능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에 있어서 A군의 경우, 듣기 조사1의 결과와는 다르게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수가 많았지만 (어두청음24 > 어두탁음21)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어중의 경우는 청음보다 탁음에 오용이 많았다(어중청음20 < 어중탁음29).

B군의 경우도 듣기 조사1과의 결과와는 다르게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수가 많았지만 (어두청음49 > 어두탁음35)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어중의 경우는 청음보다 탁음에 오용이 많았다(어중청음49 < 어중탁음64).

C군의 경우 듣기 조사1과 마찬가지로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57 < 어두탁음61), 어중의 경우 청음보다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5 < 어중탁음84).

VT법과 미니멀 페어 지도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군과 B군의 경우 학습자가 청·탁음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만든 VT법의 창작동요와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속적인 지도와 연습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C군의 경우, 학습 시간의 경과 및 학습자가 청·탁음의 음성적 차이점을 인식함에 따른 효과는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일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민광준(2015)은 학습자에 따라 일본어 발음의 습득 정도와 습득 과정에 개인차가 크고, 학습시간의 증가에 따른 일본어의 습득 정도도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5.3 지도법의 효과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의 결과, 두 그룹(A군, B군) 모두 지각 오용의 수가 감소한 사실과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명백히 밝혀졌다.

본 조사해서 실시한 두 종류의 지도법 모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오용의 감소 측면에서 VT법이 보다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와라베 노래 리듬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 등의 특징이 발음 교정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무라(木村2001)가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은 동형(同型)의 리듬, 언어, 음절, 음소의 반복이 많고, 유희의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고 본다.

반면, 일본어 초급 과정에서 발음 지도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의 경우, 한국인이 접근하기 쉬운 한국어 음운체계를 응용한 지도라는 장점은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가와라(小河原1997)도 규칙적인 발음의 반복 연습만으로 발음 향상의 학습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의 정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의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의 경우도 오용 수는 감소했지만 지도 전후의 성과가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초급 단계에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 지도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조사에서 지도와 연습에 활용한 시간이 약 70분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할 경우 오용 감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 음성항목 중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오용이 많은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성지도법인 VT법과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응용한 미니멀 페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오용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지도법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학습자의 발음 교정에 있어서 먼저 교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성적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자에게 두 언어의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음성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발음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 단시간(短時間)이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사는 일본어 음성 수업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발음 지도법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도에 있어서 단순한 발음 교정에 그치지 않고 어휘나 문법 항목과 연계하여 관련 음성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발음 교정과 동시에 어휘 및 문법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음성지도법과 음성 교재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연화(2014) 「Verbo-Tonal Method를 이용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일본어의 장음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6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3.
- _____ (2016) 「일본어 청·탁음(淸·濁音) 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과 지도법에 대하여」 『일본문화학보』 제7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1.
- _____ (2017) 「일본어 청·탁음(淸·濁音) 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과 오용 경향과 발음 지도-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을 중심으로-」 『일본근대연구』 제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0-38.
-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 발음 일주일에 끝내기』 (주)시사일본어사, pp.34-41.
- 민광준(2015) 「일본어 음성교육의 실천과 교사의 역할」 『일본어교육연구』 제31집, 한국어교육학회, pp.63-79.
- 진중복·민광준(2014)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 습득 중단 분석」 『교사와 교육』 33(1),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pp.13-33.
- 梅田博之(1985) 「韓國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と日本人に対する朝鮮語教育」 『日本語教育』 第55号, 日本語教育学会, pp.48-58.
- 小河原義郎(1997) 「英語母語話者による長音と短音の知覺」 『世界の日本語教育』 10号, 國際交流基金, pp.43-55.
- 鹿島央(2002) 『日本語教育をめざす人のための基礎から学ぶ音声学』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34-41.

- 姜蓮華(2012)「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促音の指導-音声指導法の比較を中心に-」『日本文化研究』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1-41.
- 木村政康(2001)「音声教育法-VT法の理論を応用して-」『言語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pp.45-64.
- 小坪博子・木村正康・川口義一・安富雄平(2002)『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特定非営利活動法人グベリナ記念ヴェルボナル普及協会, pp.17.
- 戸田貴子(1998)「日本語学習者による促音・長音・撥音の知覚範疇化」『文芸言語研究』言語篇第33号, 筑波大学文芸・言語学系, pp.65-82.
- _____ (2004)『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日本語発音レッスン』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02-103
- 中東靖恵(1998)「韓国語母語話者の英語音声と日本語音声-聞き取り・発音調査の結果から」『音声研究』第2巻第1号, 日本音声学会, pp.72-82.
- 松崎寛・河野俊之(1998)『よくわかる音声』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66-184.
- 福岡昌子(200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破裂音の習得研究: 知覚と生成のメカニズム」『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紀要』2, 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 pp.13-22.

논문 투고 일자 : 2017.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 要 旨 >

音声指導法を利用した日本語の清・濁音の指導効果

姜蓮華

本研究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日本語を知覚する際に誤用が多く見られる日本語の清・濁音に対して考察し、実際の日本語教育への応用を模索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

まず、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初・中級45名を対象として清・濁音の知覚における誤りの傾向を調べた。次に、より効果的な音声指導法を探るために、VT法(創作わらべうた)とミニマル・ペアを利用した指導と練習を行った。

その結果、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清・濁音の知覚に誤用が多く、特に濁音を清音に聞き間違える誤用が多いことが分かった。また、清音と濁音の位置による誤用は、語中の濁音に誤りが多く見られた。

音声指導法を用いて指導と練習を行った聞き取り調査2では、指導と練習を行ったグループのほうが指導と練習を行っていないグループに比べて、清・濁音の誤用が大幅に減少したことが分かった。特にVT法を用いて指導したグループのほうがミニマル・ペアを利用して指導したグループより誤用の減少が著しく表れ、VT法の効果が明らかになった。

The Instruction Effects of Japanese Unvoiced/Voiced Sounds:
Using Phonetic Instruction

Kang, Yeon-Hwa

This study aims to analyze Japanese unvoiced/voiced sounds with lots of misuses, when they are perceived by Korean learners of the Japanese language, and seeks to understand how th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e listening research examined the tendency of misuses in the perception of unvoiced/voiced sounds targeting 45 low/intermediate Korean learners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listening research entailed instruction and practice using the VT method (Nursery Rhyme stimulation) and minimal pair in order to identify more effective phonetic instruction methods.

The listening research showed that Korean learners of the Japanese language had lots of misuses in the perception of unvoiced/voiced sounds, especially lots of misunderstandings of voiced sounds as unvoiced sounds. Also, regarding the misuse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unvoiced/voiced sounds, there were many misuses of voiced sounds in the middle of words. In the listening research with instruction and practice using phonetic instruction, the number of misused unvoiced/voiced sounds was largely reduced in the group with instruction and practice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them. Especially, the group with instruction using VT method showed the most remarkable decrease of misuses compared to the group with instruction using minimal pair, which showed the effect of VT method.

Just as shown in the results above, it would be important to continuously instruct even for a short time after accurately understanding difficult phonetic items to learners and then introducing proper phonetic instruction methods.